

## 沖繩縣 屋部村落의 古文書와 그 特徵\*

김동전\*\*

### 1. 머리말

오키나와현(沖繩縣)은 1879년(명치 12) 「유구처분(琉球處分)」에 따라 오키나와<sup>1)</sup> 제도 외에 미야코(宮古) 군도나 야에야마(八重) 군도 등을 포함하는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 오키나와 제도는 중국문헌에 「유구(琉球)」·「유구(流求)」·「유구(瑠求)」 등으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유구(琉球)」란 표기는 14세기 샷도(察度)가 명(明)에 입조(入朝)하면서부터 사용되었다.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5,000여 리에 이르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곳은 국내에

---

\* 이 글의 작성에 도움을 제공해 준 나고사(名護市) 야부(室部) 촌락 주민과 名護市教育委員會 관계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 제주대 사학과 교수

1) 오키나와란 말은 예로부터 오키나와 섬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찍부터 사용되어져 왔다. 이를 오키나와 방언으로는 우치나(uchina)로 발음한다(新崎盛暉, 1998, 『沖繩 知る 日本 知る』).

서는 예로부터 「대유구(大琉球)」 또는 「유구(琉球)」로 널리 알려져 왔다.<sup>2)</sup>

12세기경, 유구 각 지역에는 아지(按司)라는 호족세력이 등장하였으며, 이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는 가운데 14세기 중반경 오키나와 본도에는 남잔(南山)·중산(中山)·호쿠잔(北山) 정권이 성립하였다. 15세기 초에 쇼하시(尙巴志)가 통일하여 제1쇼씨(尙氏)왕조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1469년 제1쇼씨는 제2쇼씨로 교체되었다. 14세기 중반 이후 유구는 중국과의 진공(進貢) 무역을 비롯하여 조선·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제국 등과 중계무역을 통하여 커다란 이익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계무역의 이익은 16세기에 이르러 포르투갈인이 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점차 상실되어 나갔다.<sup>3)</sup>

1609년 사츠마(薩摩) 군인 3천여 명이 도쿠가와(德川) 막부의 허가를 얻어 유구를 침략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본이 조선과의 임진왜란으로 단절된 명나라와의 관계를 유구를 통해 개선해 보고자한 것이었다. 그후 시마즈(島津)가 효과적인 경제적 침탈을 목적으로 유구 왕국을 형식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유구는 마치 일지양속(日支兩屬)<sup>4)</sup>의 시대를 거쳐야 했다. 유구 왕국의 멸망은 1879년(명치 12) 폐번치현(廢藩置縣)에 따른 오키나와 현의 설치였다. 그후 오키나와

2) 이형상(李衡祥),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한라장축(漢拏壯圖)』: 『제주(濟州)의 옛 지도(地圖)』(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참조.

3) 아라사키 모리테루 지음/김경자 옮김, 『또 하나의 일본 오키나와이야기』, 역사비평사, 1998.

4) 유구인이 일본식 풍속을 따르는 것을 금지하고, 중국 사절이 올 때는 사츠마 관리를 나하에서 피난시키고, 반대로 유구에서 경축 사절이 에도(江戶)에 갈 경우에는 일부러 중국풍 옷을 입게 하고, 사절 일행의 이름도 중국어로 부르게 하는 한편, 식사 예절까지 중국식으로 강요한 데서 비롯되었다.(아라사키 모리테루 지음/김경자 옮김, 『또 하나의 일본 오키나와 이야기』, 역사비평사, 1998) p.41.

는 미국의 지배(1945~1972년)를 받다가 1972년 5월 15일 일본으로 복귀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역사적 변천을 거쳐온 오키나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지방사(地方史)<sup>5)</sup>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그리고 그것은 야부촌락이라는 한 마을 주민들의 역사적 삶 속에서 남게된 문서, 소위 고문서(古文書)라는 한정된 자료에 국한되어 있다. 개인의 삶은 가족과 문중(門中)을 포함한 친족, 마을을 단위로 한 향촌사회, 나아가 국가라는 커다란 조직의 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야부촌락에 어떠한 종류의 고문서들이 남아 있으며, 그러한 문서들이 남게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를 추구하는 작업은 '새로운 역사'로 '민의 생활사'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이다.

오키나와의 야부촌락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과거의 수많은 시간 속에서 무엇을 기록하려 했으며, 무엇을 기록으로 남겼는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그 자체가 그들의 문화유산인 것이다. 나아가 이는 수량의 다소와 질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키나와 지역이 지니는 문화, 특히 고문서의 한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글에서는 1950년 이전의 문서만을 고문서로 취급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5) 최근 국내학자들 간에는 지방사, 지역사란 용어를 혼용해 쓰는 경향이 많다. 지방은 중앙에 종속된 개념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선 '지역사'로 불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고석규는 '지역연구'의 본질이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나라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한 새로운 학문으로, 본래 지역연구는 학문적 활동이라기보다는 정책 수단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식민지를 경험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란 용어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고석규, 1998, "지방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1』, 역사문화학회, 학연문화사, 21-24).

## 2. 야부촌락의 형성과 변천

나고시(名護市)는 1970년(소화 45) 名護·屋部·羽地·屋我地·久志의 5町村을 합하여 이루어졌다.<sup>6)</sup> 그 중에 야부지구(屋部地區)는 야부를 비롯해 宇茂佐·中山·旭川·山入端·勝山·安和 등 7개 마을로 형성되어 있다.

야부지구는 근세에 名護間切에 속하였으며, 「繪圖鄉村帳」에는 宇茂佐·屋部·山入端·安和 등의 村名이 보인다. 이 당시 村의 제사는 屋部ノ口の 관할이었다. 1737년 산림보호정책에 의해 현재의 中山에 속하였던 山入端이 현재의 지역으로 옮겨졌다. 명치 41년에 屋部地區는 島嶼町村制에 의해 名護間切에서 名護村에 포함되었다. 그후 屋部地區는 대정 13년 町制 시행에 따라 名護町에 포함되었으며, 소화 17년에는 勝山, 소화 18년에 中山·旭川이 분구 독립되어 지금의 7개 마을이 되었다(나고시사편찬위원회 소화63년, p.292).

屋部地區의 7개 촌락 중의 하나인 야부촌락의 형성은 확실하지 않으나 400여 년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高究帳」(1664년) 자료에 의하면 '야부村', 「由來記」(1713년)에는 '屋部村'으로 나타난다.<sup>7)</sup> 그러나 이 지역에는 오키나와 패총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貝塚이 야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사람이 거주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야부촌락의 동쪽에 있는 야부 하천 건너에는 屋部·宇茂佐의 옛 터인 후루지마(古島)가 있는데, 구스끄시대부터 근세에 걸치는 유물이 채집된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살던 7軒가운데 6집이

6) 名護市史編纂委員會, 『名護市史』本編 11, 名護市役所, 昭和 63年, p.18.

7) 名護市史編纂委員會, 『名護市史』資料編1:近代歴史統計資料集, 名護市役所, 昭和 56年, p.9.

야부로 왔고, 한 집은 宇茂佐로 이주했다고 전승된다.

현재 야부는 大島·久護·兼久·浜·上原 등 5개의 集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大島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久護는 久護家の 屋號에서 유래되었다. 上原은 1879년 '廢藩置縣' 후에 士族의 이주로 형성되었다. 近世 야부는 名護間切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名護間切ウエーキ의 하나로 불리워진 가문이 야부ウエーキ였다. 야부에는 야부ウエーキ의 묘가 1755년에 만들어졌으며, 그 곳에는 1757년에 건립된 묘비가 세워져 있다. 야부ウエーキ의 岸本久光은 1879년(명치 12) 名護間切 地頭代였는데, '廢藩置縣'에 반대하다 경찰에 의해 감금되었다. 그러나 그는 야부 村民의 도움에 의하여 탈출하였으나, 고문의 후유증으로 이듬해에 사망하였다. 1883년(명치 16) 야부住民과 야부ウエーキ 사이에 토지소요사건이 발생하여 야부ウエーキ와 주민간에 갈등이 빚여지기도 하였다.

1899년(명치 32) 3월 법률 제59호 오키나와현 토지정리사업법 시행(지할제도에서 사유재산제도로 토지소유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야부에서는 그해 5월에 토지정리가 시작되어 다음해 3월에 종료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 3명이 부당이익을 취하려다 주민들에 의해 발각되었다. 주민들은 크게 분개하여 이들의 불법을 제기하는 소송을 준비하기도 하였다.<sup>8)</sup> 1913년 정부의 사탕증산계획으로 사탕수수 재배를 위한 경지정리를 위해 1916년 8월에 屋部耕地整理組合이 결성되어 1917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다. 1918년 8월에는 屋部共同製糖組合이 결성되어 分蜜糖工場을 건설하였으나, 이듬해 12월에 도산하고 말았다. 1944년 10월 10·10 공습으로 마을이 피해를 입었으며, 1945년 4월에는 미군의 상륙으로 주민들이 田井等收容所에 수용되어 있다가 동년 10월말에야 귀환이 허락되었다.

8) 名護市史編纂委員會, 『名護市史』資料編·2: 戰前新聞集成·1, 名護市役所, 昭和 59年, p.61, 「名護通信」(明33, 9, 19, 琉新).

〈표 1〉야부의 人口變化

연대	호수 및 세대수	남	여	인구	호당 평균
1880년(명치 13)	263호	758	668	1,426	5.42
1903년(명치 36)	337호	928	923	1,851	5.50
1979년(소화 54)	349세대	702	648	1,350	3.86

근현대 야부의 인구변화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sup>9)</sup>

〈표 1〉에 의하면 1880년 당시 야부촌락은 263호에 인구가 1,426명이었다. 호당 평균 인구수는 5.42명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자에 비하여 남자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시 名護間切 13개 촌락 중에서 야부촌락이 가장 인구가 많았다. 1903년에는 337호에 1,851명으로 1880년에 비하여 1.3배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한 요인으로 1899년(명치 32) 5월부터 1903년(명치 36) 10월까지 시행된 토지정리사업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 시기의 토지정리사업은 법률 제59호 오키나와현 토지정리 사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개인의 토지소유권이 비로서 인정되었다. 또한 1887년(명치 20)에 야부소학교가 이 야부촌락에 설치되어 있었음을 볼 때, 야부지구의 중심은 야부촌락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1908년(명치 41)에는 소학교에 고등과가 설치되고 있어 당분간 인구의 팽창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03년(명치 36) 세율을 높이는 砂糖消費稅法改正에 대한 반대 청원서가 제출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전체 337호 중에 144호가 서명하여 36% 이상이 사탕재배와 관련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명자 중에는 사족과 평민비율이 11.8대 88.2%

9) 名護市史編纂委員會, 『名護市史』資料編 1: 近代歴史統計資料集, 名護市役所, 昭和 56年, p.52에 의해 재작성.

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그후 야부촌락은 1913(대정 2)년 사탕생산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사탕재배가 유행하였고, 1918년(대정 7)에는 조합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1924년(대정 13)부터 실시된 町制로 名護는 名護町으로 바뀌었고, 그후 나고시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3. 야부촌락의 고문서와 내용

야부촌락에서 확인된 1950년 이전의 고문서는 모두 57점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미확인된 각 집안의 장례문서를 포함하게 되면 더 발견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각 가문별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표 2>와 <표 3>을 작성하였다. 먼저 <표 2> 야부촌락 古文書의 所藏處別 現況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야부의 富豪였던 久護家 소장 문서가 18건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다른 집안에 비하여 소장 문서도 다양한 편이다. 岸本政雄家 5건, 岸本光雄家 11건, 喜友名屋 6건, 川之端·比嘉義光家 7건, 岸本すま子家 4건, 比嘉勳家 3건, 宜保榮次郎家 3건으로 모두 57건이다. 그러나 57건 중에 葬儀 관련 문서가 37건으로 거의 2/3에 해당한다. 즉 대부분의 문서가 장의 관련 문서인 셈이다. 그리고 이들 문서는 모두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며, 마을 공동의 문서들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개인간에 주고 받은 문서들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1899년(明治 32)이전에 토지사유재산제도가 백성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없었기 때

10) 砂糖消費稅法改正之儀ニ付請願(國立公文書館藏「明治36年公文雜纂 建議 5卷86」), 名護市教育委員會, 「名護市の人物誌」2, 平成 3年, 참조.

## 1) 久護家 所藏 文書

文書名	作成年代	關聯者	크기(가로×세로)	面數	內容
出願中日記	1884年(明治 17)	岸本久明	20.0cm × 27.0cm	32	토지소요사건 당시 縣廳 출두와 관련된 기록
請地高入之義に付御願書	1885年(明治 18)		19.6cm × 27.5cm	16	토지소요사건 당시 문제의 토지에 대한 생산가능량과 면적기록
アサウ原御指令濟日帳簿	舊光緒 10年 12月 18日, 明治 18年(1885) 1月 28日	地主屋部村 岸本久明	20.0cm × 27.0cm	18	토지소요사건 당시 문제의 토지였던 アサウ原과 관련된 기록
仕明清地反別并高現屨坪 本位	1887年(明治 20) 1月 11日	岸本にや	19.0cm × 27.0cm	20	仕明地에 대한 생산량 및 세금에 대한 기록
私之所持仕明御竿入表寫取帳	1875年(明治 28)乙未 舊 2月 吉日 寫之	岸本にや	19.5cm × 27.0cm	84	仕明地에 대한 기록
仕明本立并屋部村山キ那ヲ畑日記寫	未詳		19.5cm × 26.0cm	8	仕明地를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
遺言書	1875年(明治 28) 己未 7月 9日	岸本にや	38.5cm × 27.0cm	1장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는 내용
阿しやけ開修雨之時諸事日記	1881年(明治 14) 9月, 舊光緒 7年 辛巳 9月 27日	岸本にや	20.0cm × 27.5cm	44	阿しやけ를 수리하는 사용된 제반 내용을 기록
仲屋普濟之時諸事日記帳	1882年(明治 15) 8月	岸本にや	19.5cm × 26.0cm	18	집안 형제의 집을 지으면서 사용된 제반 내용
本家新築之時日記	1906年(明治 39) 舊8月	岸本久訓	18.3cm × 26.5cm	80	집을 신축하는데 사용된 재료, 작업일수, 친척의 부조 내용 기록
元祖歷代日記	1930年(昭和 5) 寫替	岸本久訓	19.5cm × 27.7cm	26	久護家 家系에 대한 기록
茶毘帳	1921年(大正 10) 舊大正9年 12月 11日	岸本久訓		8	岸本久訓의 祖母 장례시行列 순서
茶毘帳	1921年(大正 10) 12月 3日 사망			4	岸本かめ(오후 1시 사망, 4일 오후 2시 장례)
茶毘帳	1945年(昭和 20) 12月 26日 사망			4	岸本かま(오후 1:30 사망, 27일 오전 11시 장례)
民間由來記寫本	戰前 昭和年間				
王代記 寫本	1884年(光緒 21) 6月		19.5cm × 27.5cm	62장	유구 및 중산왕의 연대기
毛氏先祖由來記寫本	1891年(光緒 28)				
中山歷史 刊本	1908年(明治 41) 5月		19.3cm × 26.0cm	24장	유구역사의 왕대기



2) 岸本政雄家 所藏 文書

文書名	死亡年代	面數	內容
茶毘帳	1816年(嘉慶 21) 6월 27日 사망	34	前東江親雲上妻(6월 27일 밤 4시사망28일 장례)
茶毘帳	1892年(明治 25) 11월 11日 사망	8	前仲兼久親雲上(11월 11일 밤 5시 사망, 동 일 8시 장례)
茶毘帳	1898年(明治 31) 舊8월 10日 사망	6	故久候妻(8월 10일 酉時 사망, 11일 8시 장례)
茶毘帳	1909年(明治 42) 舊 閏 2月 13日 사망	6	岸本久安(구2월 13일 오후 3시 사망, 14일 오전 10시 장례)
茶毘帳	1918年(大正 7) 舊 9 月 16日 사망	10	故岸(9월 16일 사망, 동일 정오 장례)

3) 岸本光雄家 所藏 文書

文書名	死亡年代	面數	內容
茶毘帳	1904年(明治 37) 舊5월 3日 사망	6	岸本盛平(5월 3일 아침 4시 사망, 동일 오전 12시 장례)
茶毘帳	1924年(大正 13) 舊 10 月 6日 사망	8	岸本盛保母(10월 6일 오후 8시 사망, 7일 오후 1시 장례)
茶毘帳	1930年(昭和 5) 舊1월 20日 사망	16	岸本盛一(1월 20일 오전 10시 사망, 동일 오후 5시 장례)
茶毘帳	1933年(昭和 8) 舊 3月 28日 사망	8	岸本盛正(3월 28일 오전 11시 사망, 동일 오후 4시 장례)
茶毘帳	1936年(昭和 11) 舊11 月 5日 사망	10	岸本盛善(11월 5일 오전 10시 사망, 동일 오후 5시 장례)
茶毘帳	1939年(昭和 14) 舊8월 6日 사망	1장	岸本シツ子(8월 6일 오후 3시 사망, 동일 장례)
茶毘帳	1944年(昭和 19) 8월 17日 사망	6	岸本盛康(34세), 妻(20세), 장남 盛春(2세) 대동아전쟁으로 南洋사이판에서 사망
茶毘帳	1944年(昭和 19) 8월 17日 사망	6	岸本ハナ(35세) 대동아전쟁으로 南洋사이판에서 사망
茶毘帳	1945年(昭和 20) 4월 25日 사망	12	岸本盛保(4월 25일 오전 9시 사망, 동일 오후 8시 장례)
茶毘帳	1945年(昭和 20) 11월 25日	3장	岸本盛保의 장례시 香貫帳
茶毘帳	1945年(昭和 20) 11월 25日 사망	4	岸本盛保911월 25일 오전 9시 사망, 동일 오후 4시 장례)

## 4) 喜友名屋 所藏 文書

文書名	死亡年代	面數	內容
茶毘帳	1843年(道光 23) 1월 25日 사망	4	□□(1월 25일 오후 8시 사망, 26일 8시 장례)
茶毘帳	1879年(光緒 5) 6월 16日 사망	4	我如古筑親雲上母(6월 16일 8시 사망, 17일 8시 장례)
茶毘帳	1891年(明治 24) 2월 20日 사망	10	比嘉盛渡(2월 20일 오후 7시 사망, 21일 8시 장례)
茶毘帳	913年(大正 2) 舊11월 29日 사망	6	比嘉嘉吉母(11월 29일 오후 7시 사망, 12월 1일 오후 1시 장례)
茶毘帳	1920年(大正 9) 舊3월 18日 사망	6	□□(3월 18일 오후 5시 사망, 19일 오후 2시 장례)
茶毘帳	1925年(大正 14) 閏4월 21日	4	比嘉ナベ(4월 21일 오전 5시 사망, 동일 오후 1시 장례)

## 5) 川之端 · 比嘉義光家 所藏 文書

文書名	年代	關聯者	面數	內容
墓所仕立 諸事日記	1873年(同治 12) 4-5월	伊地味 親雲上	1책 9장	묘소를 만들 때 이에 참여한 사람 이나 부조의 내용을 기록
買物帳	1949年 舊1월 13日		1책 2장	比嘉ウシ 장례시 산 물건 기록
茶毘帳	1915年(大正 4) 舊 10월 15日 사망		1장	比嘉ウト 사망 및 장례기록(10월 15일 오후 7시 사망, 10월 16 일 오후 2시 장례)
茶毘帳	1919年(大正 8) 舊 5월 1日 사망		1장	比嘉義吉(5월 1일 오후 11시 사망, 5월 2일 오후 3시 장례)
茶毘帳	1946年 舊8월 13日		4장	比嘉マシ(8월 13일 오후 9시 사망, 8월 13일 오후 2시 장례)
茶毘帳	사망 1949年 舊1월 12日		4장	比嘉ウシ(1월 12일 오후 4시 30분 사망, 13일 오후 2시 장례)
茶毘帳 (燒香者 帳)	사망 1949年 舊1월 13日		1책 5장	당일 燒香者 名簿, 5円(87명), 10 10円(2명), 100円(1명)

6) 岸本すま子家 文書

文書名	死亡年代	關聯者	面數	內容
茶毘帳	1863年(同治 2) 2 月 12日 사망		16	前兼久大屋子(2월 12일 밤 4시 사망, 13일 오후 장례)
茶毘帳	1870年(同治 9) 6 月 14日 사망		14	大兼久親雲上妻(6월 14일 밤 7시 사망, 15일 8시 장례)
茶毘帳	1879年(光緒 5) 3 月 3日 사망		16	前兼久大屋子妻(3월 3일 9시 사망, 4일 8시 장례)
元祖傳來記	1935年(昭和 10) 舊 7月 6日 작성	岸本太松	10	「石根ヨリ元祖御供シタ時書」

7) 比嘉勳家 文書

文書名	作成年代	面數	內容
恩納間切山田村并首里浦 添中城高嶺排神耕作 一門中日記	1893年(明治 26) 舊7月 26日	26	5개 마을에 있는 神에게 排하는 것과 관련된 문중일기
今婦仁城排神耕作一門中 日記	1899年(明治 32) 舊8月 10日	12	今婦仁城에 있는 神에게 排하는 문중일기
耕作屋祖先位牌記	未詳		선조에 대한 위패와 관련 된 기록

8) 宜保榮次郎家 文書

文書名	死亡年代	面數	內容
茶毘帳	1876年(明治 9) 11월 10日 사망(59세)	3장 3장	宇茂佐親雲上(11월 11일 4시 사망, 12일 8시 장례)
茶毘帳	1888年(明治 21) 9월 15日 사망(36세)	2장	宜保(9월 15일 오전 6시 사망, 동일 12시 장례)
茶毘帳	1908年(明治 41) 舊12 月 6日 사망		女ウシ(12월 6일 사망, 7일 장례)

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토지매매문서에 국한된 것이다. 그 이외로 얼마든지 개인간에 문서의 교류가 있었겠

〈표 2〉 야부촌락 古文書의 所藏處別 現況

單位: 件

文書分類 所藏家門	葬儀文書	土地 文書	土地騷 擾事件 文書	建築 日記	先墓·門 中文書	家門 由來 文書	民間 由來 記類	遺言 文書	計
久護家	3	3	3	3		1	4	1	18
岸本政雄家	5								5
岸本光雄家	11								11
喜友名屋	6								6
川之端·比嘉 義光家	6(1件 買物帳)				1				7
岸本すま子家 比嘉勳家	3				3	1			4 3
宜保榮次郎家	3								3
計	37	3	3	3	4	2	4	1	57

지만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다음으로 〈표 3〉을 통해 야부촌락 古文書의 內容別·時期別 現況을 보자.

고문서 총 57건 가운데, 장의 관련 문서가 37건, 야부 토지소요사건 관련 문서 3건, 仕明地 관련 문서 3건, 건축일기 3건, 선묘 및 문중 관련 문서 4건, 가문유래 문서 2건, 민간유래기 문서 4건이다. 그리고 이를 시기적으로 구분해 보면, 1879년(명치 12) 이전의 문서가 10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그 이후의 문서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 고문서가 1816년으로 그 이전의 고문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이들의 신분이 당시 일반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토지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등 문서를 소지한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과 연관된다.

장의 관련 문서 37건 가운데 1879년 이전의 것은 7건이며 대부분은 그 이후이다. 이는 1879년 이후 조상에 대한 봉사의식이 강화되어 나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장의 문서의 내용은 대부분 사망 및 장례

〈표 3〉 야부촌락 古文書의 內容別·時期別 現況

單位: 件

年代 內容別	1879年(明治 12) 以前				1879年(明治 12)~1950年(昭和 25)							未詳	計
	1810	1840	1860	1870	1880	1890	1900	1910	1920	1930	1940-50		
葬儀文書	1	1	1	4	1	3	3	4	5	4	10		37
土地文書				1	1							1	3
土地騷擾 事件文書					3								3
建築日記					2		1						3
先墓·門 中文書				1		2						1	4
家門由 來文書										2			2
民間由 來記類					1	1	1					1	4
遺言文書				1									1
計	1	1	1	7	8	6	5	4	5	6	10	3	57

시간, 부조자 명단 및 물건이나 금액, 그리고 49제, 1년, 3년, 7년, 13년의 주기 제향 관련 기록을 추가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屋部 토지소요사건 관련 문서 3건은 토지소요사건이 발생해서 久護家와 주민간에 소송이 이루어지면서 작성된 내용의 문서들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仕明地 관련 문서 3건은 이 역시 토지소요사건이 발생하면서 久護家 소유의 사명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縣廳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久護家 집안 관련 내용만 久護家에서 작성해 온 것이다.

건축일기 3건 역시 久護家가 소장하고 있는 문서로 건축의 수리 및 신축에 쓰인 재료, 작업일수, 부조 내용 등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本家新築之時日記」와 「仲屋普清之時諸事日記帳」는 현재 오키나와

縣指定文化財로 되어 있는 건물과 함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선묘 및 문중 관련 문서 4건은 조상에 대한 공양 및 위패에 대한 기록과 돌아가신 분의 뼈를 洗骨해서 넣을 경우 언제 넣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뼈인가를 구분하기 위하여 조상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명백히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그리고 묘소를 만들 때 부조자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가문유래 문서 2건은 사족신분으로의 상승 또는 가문의 위상 제고를 위해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집안의 모든 사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를 계승한 사람만 기록하였다. 민간유래기 4건은 久護家 집안과는 관련없는 문서로 이 집안에서 선조를 찾는 작업의 과정 중에 선조를 유구 국왕과 관련해서 찾아보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즉, 久護家는 본래 일반 백성 집안이었는데, 久訓이 유구왕가와 연결해 신분의 상승을 시도한 흔적을 알아볼 수 있는 문서라 할 수 있다.

유언서 1건은 아들이 일찍 사망하자 손자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문서인데, 유언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 즉 手決이 없다. 단지 필체로 유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 4. 久護家 文書에 나타난 야부 토지소요사건

##### 1) 久護家 家門의 位相

이 문중은 부이치문(大一門)이라 한다. 부이치문에는 久護家를 포함한 이시카기야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과 '나구야'(별명 아지미찌야, 岸本東光氏)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진다. 久護家의 家系는 다음과 같다.

〈久護家 家系圖〉<sup>11)</sup>

初代：崎山按司長男 - 2대：前伊豆味親雲上 - 3대：前東江親雲上  
 - 4대：前東江親雲上 - 5대：東江親雲上 - 6대：岸本親雲上 - 7대  
 : 大兼久親雲上 - 8대：岸本仁屋 - 9대：東江親雲上(岸本久光,  
 1827-1880) - 10대：仲兼久大屋子(岸本久明, 1852-1891) - 11대：  
 岸本久訓(1875-1946) - 12대：岸本久成(1920-1945) - 13대：岸本久  
 嗣(현재)

久護家は 조상대대로 名護間切의 관직을 역임하였는데, 仲北山이  
 멸망하자 초대 崎山按司長男 アジガナシー가 宇茂佐 古島로 이주해  
 왔다. 그리고 이 가문이 야부로 입향한 것은 2대 前伊豆味親雲上 때  
 의 일이다. 그가 이 곳에 정착하기 전에는 대부분 습지였는데, '말의  
 울음 소리가 들리는 이런 습지에 집을 지으면 큰 부자가 된다'는 속  
 설을 믿고 이 곳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이 가문은 3대 前東江親雲上이 喜瀬 御主前으로 재임하였는데, 이  
 때부터 이 가문이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  
 다. 이는 특히 그의 후손들이 기도를 할 때, 이 3대를 주로 거론하고  
 있으며, 4대 前東江親雲上이 3대 前東江親雲上의 묘를 크게 만든 것  
 도 이러한 배경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문의 부를  
 쌓을 수 있었던 배경은 유구왕가와의 밀접한 연계가 있었다. 즉, 3대  
 東江親雲上이 地頭代役의 관직을 9년간 재임하였는데, 이 때 王山林  
 巡幸 때에 왕의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자비로 건립하여 王家의 환심  
 을 샀던 것이다.

3대 東江親雲上에서 축적하기 시작한 富는 9대까지 계속 증식해 왔  
 으나, 10대 仲兼久大屋子(岸本久明, 1852~1891) 때에 마을 주민과

11) 久護家 所藏 文書, 「元祖歴代日記」 참조.

토지분쟁사건이 발생하면서 점차 재산이 축소되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9대 岸本久光(1827~1880)은 위패에 東江親雲上이라 되어 있는데, 전쟁 때에 호적이 없어져 새로 만들면서 '久光'이란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는 1879년 유구처분 당시에 名護間切 地頭代를 역임하였으나, 그 직후에 사망하였다. 토지분쟁 당시 문제가 된 アサウ原 토지는 바로 이 때에 排領地로 마련된 것이다. 당시 屋部村 주민들은 문제의 토지 중의 하나였던 アサウ는 久護家에서 사적으로 붙인 지명으로 トマ原과 같은 토지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9명의 아들을(서자 3인 포함) 두었는데 장남 久明이 아들이 없어 차남 久豊의 아들 久訓이 양자로 가게를 승계했으며, 久訓 역시 아들이 없어 久光의 6남인 久榮의 次男 久成을 양자로 삼았다. 11대 岸本久訓(1875~1946)은 마을에 사탕수수 공장을 만들어 재산을 증식시키는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하여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기 시작하여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였다.

위패를 모셔놓은 불당에는 9대 久光의 위패가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8대와 9대가 형제지간으로 위패를 같이 모시면 불행이 닥친다는 유타(ユター)의 말을 믿고 다른 자손이 가져가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형제의 위패를 같이 배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식은 소화 초기에 오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이 집안에서 형제를 같이 모셨었던 것이다. 그리고 久成과 久訓의 경우도 사촌으로 서로 養子를 삼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위패도 같이 모셔 있다.

## 2) 야부의 토지소요사건

근세 유구에서는 신분에 의해 거주지역이 엄밀히 구분되어 있었다. 즉, 지배자계급은 도시지역, 일반 백성은 지방에 거주하였다. 특히 백성들은 엄격한 貢租를 부담하고 있어서 도시지역으로의 이주는 물



론, 타지역으로의 이주도 금지되어 있었다.

한편, 경작지는 크게 百姓地, 役地, 仕明地로 구분되어 있었다. 백성지는 王府에서 백성에게 나누어 경작토록 한 것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분할되는 地割地로 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백성의 토지 소유는 원칙적으로 1899년(명치 32) 이전에는 금지되어 있었다. 役地는 按司地頭·總地頭·脇地頭에게 준 地頭地, 地頭代 이하의 間切役人에게 주는 わえか地, のろ職에게 수여한 のろくもい地를 말한다. 仕明地는 개간한 경지를 말하는데, 私有가 허락되었다. 그러나 백성이 개간해서 소유할 수는 없었으며 관리들이 국가의 허가를 받아 개간을 하였다.

백성들은 王府, 摩에 조세를 부담하는 한편, 地頭地나 おえか地 등을 경작하는 의무가 있었다. 役地를 경작한 백성의 수입량은 대략 생산량의 1/3정도이며, 지주의 수입은 나머지 2/3에서 조세를 뺀 나머지가 되었다.

屋部村에는 광활한 경지가 있었으나, 仕明清地·오에가(オエガ)地·地頭地·노로고모이(ノログモイ)지가 대부분으로 地割地 성격을 지닌 百姓地는 극히 저조하였다. 특히 屋部うえ-き 久護家は 1,500평이 넘는 垆地和와 阿蘇原에 48,000평에 달하는 仕明清地를 소유하고 있었다.

1883년(명치 16) 屋部村에서는 村民들에 의해 屋部うえ-き 久護家が 소유하고 있던 대지 및 토지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토지소요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1879년(명치 12) '廢藩置縣'으로 琉球國이 일본에 병합된 후에 발생한 것으로 유구 정부에 있었던 관리들이 일본에서 온 관리들로 교체되는 속에서 주민들의 민권운동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다. 村民들은 久護家に 亂入하여 택지의 동북쪽에 있는 나무들을 벌채하고 제멋대로 택지를 양분하였다.<sup>12)</sup>

12) 久護家 所藏 文書, 「アサウ原御指令濟日帳簿」.

그리고 주인 岸本久明을 협박해서 阿蘇原 지역의 토지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당시 백성의 택지는 80평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나머지는 有租地로 地稅를 납부해야 하였다. 따라서 1,500평이나 되는 久護家 택지의 일부가 임의로 소유한 것이라는 촌민들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소요사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阿蘇原 토지의 탈환이었다. 이 阿蘇原 토지에 대해 久護家は 排領地로 地券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500평에 이르는 택지는 당시 특권귀족도 얻기 어려운 크기였다. 그리고 久護家は 1,500평에 이르는 택지의 소유를 입증하는 地券도 지니고 있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岸本久明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가 없어 1883년 12월 7일 현청에 촌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sup>13)</sup> 재판소에서는 1884년(명치 17) 음력 9월 26일 출두해 줄 것을 久明에게 요구하였으나, 久明은 피부병으로 1주일간 출두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동년 음력 10월 11일 오키나와 현청에 출두한 久明은 현청 收稅課 관리 大田으로부터 阿蘇原은 종전대로 久護家の 소유로 하되, 屋敷地 중 규정 이외의 대지는 屋部村에 넘겨줄 것을 제안받았다. 그러나 久明은 10월 14일 이들 토지는 선조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며, 규정 이외의 屋敷地에 대해서는 매년 粍米 8두 5승 5홉을 屋部村에 납부함으로써 소유해 왔다는 근거로 승복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10월 22일 이를 문안으로 현청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에 의하면 규정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게 된 것은 흉년으로 屋部村 貧民들이 年貢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先祖가 빈민 구제 차원에서 米와 錢을 촌민들에게 베풀어 주어서, 그 결과 屋部村과 상의하여 규정 이상의 택지를 私敷地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4)</sup> 그러나 몇 차례의 재

13) 久護家 所藏 文書, 「アサウ原御指令濟日帳簿」.

14) 屋部家 所藏 文書, 「明治十七年十一月より出羈中日記」.

판 결과, 1885년 1월 19일 アサウ原은 久護家에서 백여 년 내외로 개간하여 경작해 왔으므로 소유권은 岸本久明에게 있다는 指令62號의 縣令을 내렸다.<sup>15)</sup> 阿蘇原은 久護家 소유의 증거서류가 구비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였으나, 택지는 600평을 촌민들에게 양여하는 조건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sup>16)</sup> 현재 주민에게 양보된 그 대지에는 比嘉よしひで, 仲兼久前造, 比嘉爲孝, 比嘉茂, 比嘉ラト 등 5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대지 한 필지는 공터로 남아 있다.

## 5.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간략히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야부촌락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것으로 1) 400여 년 전에 형성된 야부촌락은 17세기 중엽에 「やぶ」로 기재되다가 1713년경 「屋部」로 기재된 후 변동이 없으며, 다만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名護間切 → 名護村(1908년) → 名護町(1924년) → 屋部村(1946년) → 名護市(1970년)에 소속되었다. 2) 취락의 형태는 集村의 성격이 강하며, 생업 면에서는 戰前까지는 농촌 마을, 마을 주민의 신분 구성에서 볼 때는 民村 마을이었다. 그리고 여자에 비해 남자가 많은 촌락의 성격을 띠고 있고, 호당 평균인구는 5.46명(세대당 3.86명: 1979년 자료)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야부촌락의 고문서가 지니는 특징으로는 1)장의 관련 문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문서의 발급자와 수급자가 명확하지 않은 즉, 문서의 대상이 없이 작성자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기록된 備忘錄에 속하는 것이다. 이는 조상에 대한 奉祀

15) 久護家 所藏 文書, 「アサウ原御指令濟日帳簿」.

16) 比嘉宇太郎, 「名護六百年史」, 1958.

意識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장례식 및 49제, 1년, 3년, 7년, 13년의 주기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또는 장례식과 관련하여 돈이나 물건을 도와준 사람을 기재해 둠으로써 후일 그 집안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상유래기 또는 문중일기 등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 시기는 명치시대로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 만들었을까? 士族으로의 신분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조상에 대한 유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본래 百姓身分에게는 系圖<sup>17)</sup>의 所持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또는 1879년 「廢藩置縣」이후 백성들의 권한이 다소 신장되면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참고해서 조상의 이름, 그들의 관계를 명백히 문서화 해 나갔다. 이 경우 집안의 모든 사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를 계승한 사람만 기록하는 것이 특징이다. 位牌에 대한 기록은 사망한 사람의 뼈를 洗骨해서 넣을 경우 언제 넣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뼈인가를 구분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러한 조상을 찾기 위한 조상유래기 작성은 메이지시대 때부터 성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특히 집안에 불행이 있을 경우 조상을 제대로 봉사하지 않아 불행이 닦친다는 의식을 사람들이 지니기 시작하면서이다. 그리고 昭和初期에 이르러서는 장·차남을 같이 묘소에 모시거나, 위패를 배향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집안에 불행이 닦친다는 의식을 갖기 시작하였다.

3) ‘中山歷史’, ‘王代記’ 등 집안과 관련없는 民間由來記類의 문서가 남게된 것은 집안에서 선조를 찾는 작업의 과정 중에 선조를 유구 국왕과 연계해 보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즉, 久護家は 본래 일반 백

17) 家譜(かぶ)로 始祖부터 代代로 생몰·업적을 기록해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系圖座에 제출하였고, 1부는 국왕의 印을 押印하여 집안에 돌려주면 각 집안에서는 士族身分임을 증명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系圖座는 1689년에 설치되었으며, 系持는 士族, 無系는 百姓身分이었던 것이다.

성 집안에서 地方役人으로 진출하였는데, 10대 久明이 가문을 유구왕가와 연결해 보려고 이와 관련된 문서들을 작성해 놓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久護家 가문과 주민간의 토지소요사건과 관련된 문서이다. 1883년(명치 16) 토지분쟁 당시 주민들의 요구는 대지(1,500평)의 일부를 축소하여 그 나머지 부분은 주민에게 양보할 것과 阿蘇原의 토지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재판 결과 1885년(명치 18) 1월 19일 阿蘇原 토지의 소유권은 久護家에게 인정되었으나 대지 중 600평은 주민들에게 양여되었다. 이 사건은 1879년 일본에 병합되면서 유구국의 멸망으로 舊官僚의 위상이 약해지자, 이를 틈타 주민들이 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차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久護家가 地方役人으로 관직을 임용받은 임명장이나 양자 입양시 가문간에 이를 약속하는 문서나 양자를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문서들이 확인되지 않음은 의문으로 남는다.

---

참고문헌

고석규

1998 “지방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1』, 역사문화 학회, 학연문화사, 21-24).

아라사끼 모리테루 지음/김경자 옮김

1998 『또 하나의 일본 오키나와 이야기』, 역사비평사, 40-41.

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시

1994 『耽羅巡歷圖』(영인본), 『漢拏壯圖』, 16-17.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濟州의 옛 地圖』, 9-19.

比嘉宇太郎, 소화 33, 『名護六百年史』.

名護市史編纂委員會, 소화 56, 『名護市史』 資料編 1: 近代歷史統計資料集, 名護市役所, 9-52.

名護市史編纂委員會, 소화 59, 『名護市史』 資料編·2: 戰前新聞集成·1, 名護市役所, 61.

名護市史編纂委員會, 소화 63, 『名護市史』 本編11, 名護市役所, 18, 292.

名護市教育委員會, 평성 3, 『名護市の人物誌』 2, 158-162.

## Documents in Yabu Village, Okinawa, Japan

Kim Dong Jun

The documents found in *Yabu* (屋部) village, Okinawa, Japan may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funeral and ancestor worship, family history, local history, and court records. Most of them are the documents regarding funerals and ancestor worship ceremonies since the 19th century. The list of givers and gifts including money was recorded in these documents.

There are also the documents of family and local history, which were recorded for common people to move toward the aristocratic class during Meiji era. In those days, furthermore, when a family had a misfortune, they came to believe that they had neglected the worship of their ancestors. Such an idea made them record the oral family history. The efforts to link one's ancestor with the king of Ryukyu resulted in recording the oral local history.

Particularly, the court records of January 19, 1885 (Meiji's 18th year) were about the disputes of land ownership between *Fugu* (久護) family and common villagers. They show that commoners tried to increase their interests when the influences of the bureaucratic class such as *Fugu* family in Ryukyu were weakened by the annexation of Ryukyu to Japan in 1879.